

농촌사회, 귀농·귀촌·다문화 가정 차별 여전

농촌경제연구원 조사보고서, 상호 이해 부족으로 갈등 경험 많아
포용적인 농촌 다문화가족 복지정책 확대 등 사회통합 정책 필요

농촌사회에서 귀농·귀촌인과 다문화가정에 대한 차별이나 무시가 여전히 이뤄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농촌지역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귀농·귀촌이 떠오르고 있고, 전남지역 내 다문화가정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농촌의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17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이 발표한 연구보고서 ‘농촌의 사회통합 실태와 정책 개선방안-다문화가족과 귀농·귀촌인 대상 심층연구’에 따르면 마을주민과 말다툼을 하거나 싸우는 등 갈등을 경험한 결혼 이주여성인 15.6% 수준이었다.

특히,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이나 무시를 당한 경험은 23.2%에 달했고, 다문화가정의 자녀라는 이유로 기존 지역주민에게 차별과 무시를 당한 경험 역시 23.2%로 높게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다문화학생의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전체 학생 중 다문화 가정 학생 비율이 전남 4.3%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는 점을 감안, 지역 내 다문화가정 차별이 심각한 지역사회의 문제로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귀농·귀촌인 역시 주민들과 말다툼이나 싸우는 등 갈등을 경험한 비율이 12.7%로 나타났으며, 농촌에서 생활하면서 귀농·귀촌인이라는 이유로 기존 주민들에게 차별이나 무시를 당한 경험도 14.2%나 됐다. 갈등의 주요 원인으로 ‘상호이해 부족 또는 오해’(이주여성 42.6%, 귀농·귀촌인 27.5%)가 가장 많았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문화가정과 귀농·귀촌인이 지역사회 원주민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진단

했다. 이밖에 다문화가정의 경우 한국어교육의 개선과 가족교육 및 이중언어 교육의 강화, 다문화 자녀의 학습지원 및 진로지도 교육 강화를 제시했고, 귀농·귀촌인들은 마을공동체의식 함양과 상호 이해교육 강화, 마을에서의 멘토링 제도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농촌사회에서 마을주민과의 갈등이나 차별 외에도 농촌사회 양극화도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주여성의 43%는 농촌사회가 양극화돼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귀농·귀촌인들은 무려 60%나 농촌사회 양극화를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주여성은 ‘일자리·돈벌이 기회 부족’(47.7%)과 ‘대농위주의 농업정책’(18.1%)을 원인으로 지목했고, 귀농·귀촌인은 ‘대농위주의 농업정책’(32.9%), ‘일자리·돈벌이 기회 부족’(32.4%)을 꼽았다.

이에 따라 대농위주의 농업정책을 벗어나 중·소농 육성정책이 필요하고, 이주여성들의 일자리 확대를 위한 직업알선과 교육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고서는 “농촌의 다문화가정과 귀농·귀촌인의 사회통합 증진을 위한 정책 기반방향으로 포용적인 농촌 다문화가족 복지정책 확대와 포용적 귀농·귀촌정책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연구보고서는 농촌 가문화가족 514명(결혼이민자 302명·남편 106명·시부모 106명)과 귀농·귀촌인(귀농 273명·귀촌 270명)을 대상으로 면접 설문조사를 실시해 얻은 결과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청년창업농 지원사업’ 전남서 442명 신청

월 100만원 최장 3년간 지원

2900여명의 청년 농부들이 미래 먹거리를 농업에서 찾겠다며 정부의 청년창업 육성사업에 신청서를 냈다. 전남에서도 400명이 넘는 청년 농부들이 도전장을 던졌다.

1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1600명을 모집하는 2019년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접수수를 마감한 결과, 모두 2981명이 신청서를 냈다.

이 사업은 청년농업인의 창업 초기 생활 안정을 위해 매월 최대 100만원을 최장 3년간 지원하는 제도로, 전남에서는 모두 442명의 청년 농부들이 신청서를 냈다.

전국적으로는 경북(552명)이 가장 많았고 전북(447명), 전남(340명) 등의 순이었다. 경력별로는 독립경영예정자가 가장 많았다. 부

모가 농촌에 사는 등 영농기반이 있는 청년들(2057명) 외에도 기반이 전혀 없는 청년들(927명)의 신청도 적지 않았다. 또 비농업계 졸업생(2241명)이 농업계 학교 졸업생(740명)보다 3배 이상 많았다.

농식품부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이달 중 시·군 단위 서면 평가를 거쳐 시·군별 1.5배수를 뽑고 다음 달 면접을 거쳐 1600명을 4월경 최종 선발한다.

농식품부는 “선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서면·면접 평가위원은 외부 전문가로 꾸렸다”며 “농식품부 주관으로 별도의 교육도 할 것”이라고 전했다.

농식품부는 최종 선발자를 대상으로 4월 중 지원금 사용 범위와 의무 사항에 대한 사전 교육을 할 예정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큰징거미 새우 예비창업자 원스톱 컨설팅

전남어촌특화센터, 경북 칠곡면에서 기술이전 교육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는 지난 14·15일 경북 칠곡군 덕산수목원에서 큰징거미 새우 예비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친환경 양식 원스톱창업지원 컨설팅을 실시했다.

센터의 기술이전 교육을 이수한 예비창업자 5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컨설팅은 3주간 경북 칠곡, 경남 창원, 전북 고창 등 전국 큰징거미새우 거점시설에서 계속될 예정이다.

이번 컨설팅은 창업지원, 양식시설 및 기술심화, 홍보 마케팅 등 큰징거미새우 양식장 운영 전반을 대상으로 한다.

이날 황경도 덕산수목원 대표는 큰징거미새우 6차산업 컨설팅, 실내 외 양식 시설 견학,

수조만들기 체험, 큰징거미새우를 활용한 새우피자 만들기 등을 주제로 강의했다. 또 정책자금 컨설팅에 나선 이남현 강사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진흥공단 등을 통한 자금 지원 방안을 주제로 교육했다. 황경도 대표는 “큰징거미 새우 양식에 관심을 갖는 예비 창업자가 많다는 사실에 놀랐다”며 “큰징거미새우 양식 시장확대를 위해 예비 창업자들에게 많은 노하우를 전수하겠다”고 말했다.

센터는 큰징거미새우 이외에도 해삼, 전복에 대한 창업지원 컨설팅을 진행중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2018 농협 상호금융 대상’ 전남서 15곳 선정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석기)는 농협중앙회가 전국 농·축협을 대상으로 농협중앙회가 평가하는 ‘2018 상호금융 대상’에서 전남 관내 15개 농협이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상호금융대상 평가는 전국 1121개 농·축협을 대상으로 재무상태, 고객만족도, 보험, 카드, 영업능력향상, 핵심인재 육성 등 30개 항목의 신용사업 전반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우수 농·축협을 선정하는 상호금융부문 최고 시상제이다.

이번 상호금융대상 평가에서 나주농협(조합장

허철호)·안양농협(조합장 김영중)·화순농협(조합장 이형권)은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영광농협 등 12개 농협은 우수상과 장려상을 수상했다.

김석기 본부장은 “관내 지역 농협들의 수상은 고객밀착형 상호금융 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했기 때문이다”며 “올해도 농업인과 고객으로부터 사랑받는 농협구현과 상호금융의 건전한 발전을 통한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주간 증시 전망

미·중 무역협상, 북·미회담 영향

외국인 매매 동향에 촉각

제약·바이오·화학품 순환매에 관심을

코스피지수는 2200선에서 물량부담으로 2주 연속 ‘횡보’ 국면이 이어졌지만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적었던 코스닥지수는 6주연속 상승하며 738.66포인트를 기록했다. 미국 다우산업지수와 나스닥지수는 미·중 무역협상 기대감으로 8주연속 상승세를 이끌었다. 지난주 11일 무역협상 실무급회담과 14·15일 고위급회담이 베이징에서 열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에 진전이 이뤄졌으며 오는 1일 전, 최종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를 상향 조정 없이 무역협상을 60일 연장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시진핑 주석도 미국협상단을 방문하는 등 미·중 양국이 무역협상 타결에 강한 의지를 보여줬다.

지난 금요일 아시아 증시를 하락으로 이끌고 미국증시 추가상승을 제한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여야 상·하원이 통과시킨 ‘연방정부 예산안’에서 명목하면서 섰다운은 피해갔지만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을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을 확대시켰기 때문이다.

지난 14일 2월 옵션만기일 마감 동시호가에 코스피지수가 큰 폭 상승했다. 장 마감을 앞둔 시점에서 금융투자(증권사)의 현물매매는 1000억원 순매도였는데 3670억원 순매수로 마감했으니 종가에만 4700억원 가량 순매수인 것이다. 선물옵션 동시만기가 아닌 옵션만기일 순매수로 보는 매우 이례적으로 큰 규모이며 변동폭도 크게 나타났다. 이유는 장 중반 이후 미니선물매수가 유입되면서 선물과 현물의 가격차가 발생했고 가격 차이를 발생하지 않도록 조절해 주는 증권사LP가 한꺼번에 마감동시호자로 순매수가 유입되며 급등한 것이다.

이와 같은 선물옵션만기일 영향은 그 다음날 영향을 주게 되는데 중국이 미국산 반도체 수입을 2024년까지 6000억달러까지 늘리겠다는 소식으로 국내반도체 수입감소 우려로 시가총액 비중이 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하락폭이 커지면서 지수변동폭을 키웠다. 하지만 이런 후폭풍 영향은 시장의 추세적 흐름과는 영향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현재국면은 약세장에서 나타나는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장세(미니우동성장세)로 코스피지수 2200선 이상에서는 지수 추가상승보다는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작았던 종목들과 코스닥시장에서 순환매 흐름에 대응하기를 권유했었다. 지난 2주간 코스피지수는 2200선을 중심으로 물량소화과정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하락추세대 상단인 현주세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미·중 무역협상과 북·미회담에서 긍정적인 소식도 중요하지만 국민연금 국내투자비중이 축소하면서 기관투자자와 개인투자자들의 매수동력이 약화되어 외국인 순매수가 꼭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어느 때보다 외국인 매매동향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지난주는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이 6일연속 순매도를 보이면서 코스닥지수가 상대적 강세를 보였고 그 동안 소외되었던 제약·바이오와 화학품에도 순환매 흐름이 나타났는데 이번 주에도 외국인 동향에 주목하면서 순환매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정 계 두

〈유진투자증권
광주지점장〉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